

##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정주원\*<sup>1)</sup>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

### Effect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and Parental Support on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Jung Joowon\*<sup>1)</sup>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and parental support on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number of subjects for this study was 290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attitude in career maturity were higher for students with communication, field trip and visiting, and field experience in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However, career planning did not have any correlation with field experience types of attitude in career maturity. The effect of competency in career matur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udent experience with theory, communication, and field trip and visiting in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Second, parental suppor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ll factors of career maturity. Third, results identify career maturity impacts on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The types of communication as well as field trip and visiting significantly affected all components of career maturity. The type of theory was a factor affecting competency. In addition, the results reveal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on the career maturity. Emotional suppor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all factors for career maturity, except for career exploration. Informative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planning, career independency and career exploration. Finan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occupational attitude, career independency and career exploration.

**Key words:** 진로체험(Career Experiential Learning), 부모지지(Parental Support)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

---

1) 교신저자: Jung Joowon  
Tel: +82-2-2260-8750, Fax: +82-2-2265-1170, E-mail: jjwchc@dongguk.edu

## I. 서론

고등학교 시기는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탐색하며 진로결정에 적극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Kim & Hwang, 2016).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고등학생에게 진로와 직업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이 시기의 진로교육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하며, 나아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짓게 하는 핵심이 된다.

진로교육은 고용불안, 청년실업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낸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생애관점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들어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내용을 체계화하도록 하였으며, 기술·가정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2009) 또한, 진로교육법이 시행되고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서 생활중심의 실천적 체험중심 학습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진로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3). 진로체험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교육으로(Ministry of Education, 2013a),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 비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효과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Kang, 2004).

진로체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바르고 건전한 진로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교육수단에 해당한다(Kim, 2010). 특히 기술발달에 따른 진로의 생성과 소멸이 나타나고, 이직과 전직이 보편화되는 진로세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진로결과 준비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생생한 진로세계를 탐색하여 뚜렷한 진로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가 필요하다(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3).

진로체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

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직업의식을 소유하게 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역량은 진로성숙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진로성숙도는 한 개인이 발달단계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정도를 의미한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1). 진로성숙도가 발달된 이들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진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진로발달이 중요한 고등학교시기에 진로성숙도는 실제 직업세계에 진출하여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밑바탕이 되므로(Won, 2013),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진로체험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로교육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로체험과 진로성숙도 관련 연구 대부분은 진로체험의 양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성숙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행되어 왔으며(Cho, 2011; Cho & Hwang 2014; Kim & Yang, 2012; Kim, Yoo, & Oh, 2014), 진로성숙도를 구성하는 하위 역량 요소에 대한 진로체험의 구체적인 효과 검증은 미흡하게 이루어져왔다(Kim & Hwang,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태도적 차원(진로계획성, 진로독립성, 직업태도)과 능력적 차원(자기이해, 진로탐색) 영역으로 분류하여 진로체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하위영역으로의 접근은 진로성숙도의 세부적인 역량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진로교육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행동이 구체화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진로성숙에 대한 역량 함양은 올바른 진로의사결정뿐 아니라 사회 적응과 생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Park & Kim, 2006).

이울러 본 연구에서는 진로체험을 이론형, 대화형, 견학·방문형, 현장체험형으로 나누어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진로체험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직접체험이 간접체험보다 진로성숙도에 더 큰 효과를 보여준 연구(Kim, Yoo, & Oh, 2014)와 특정 직업인과의 만남이나 인터뷰, 진학 관련 멘토링 참여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수준을 높인다는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나(Kim & Hwang, 2016), 진로체험을 개별적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바라봄으로써, 진로체험의 구조적 접근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의 구체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진로체험의 핵심 구성과 실행에 의미 있는 정보적 역할을 제공하고자 진로체험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진로발달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Blustein et al., 1991; Lee & Kim, 2007), 특히 부모 지지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 Shin, 2015; Park & Chang, 2013).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는 학생들이 진로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긍정적인 자신감을 향상시켜 진로실행의 불안을 낮추고, 기능적인 진로사고를 촉진시켜준다(Kim & Lee, 2007).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의 심리적 독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지며, 자녀의 진로계획과 진로결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높게 보고되므로(Kim & Lee, 2007; Kwak, 2011),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진로성숙도는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대부분이며(Choi, 2007; Han, 2003; Song & Hong, 2010; Yi, 2009), 고등학생의 측면에서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전무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체험 유형과 부모 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즉 태도적 차원(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 능력적 차원(자기이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진로성숙도의 구체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진로체험 핵심 유형과 부모지지 장려를 모색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이론형, 대화형, 견학·방문형, 현장체험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태도적 차원(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과 능력적 차원(자기이해, 진로탐색)이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둘째, 진로관련 부모지지(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셋째,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이론형, 대화형, 견학·방문형, 현장체험형)과 부모지지(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 이론에서 나타났으며,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능력이 연령에 따라 변화되는 것에 주목하여, 진로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조되었다(Criets, 1974; Super, 1953).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진로발달의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진로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정도로서(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1),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 과업 수행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한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9).

진로성숙도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사용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Au, 2008; Kim & Lee, 2007). 그러나 고등학교시기에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들은 심리적 독립을 못하고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못하여 졸업 후 부적응의 문제로 혼란을 겪게 된다(Park & Kim, 2006). 따라서 고등학교시기에 학생들이 적절한 진로성숙도를 형성하여 학생 스스로 긍정적인 진로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진로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진로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성숙도는 크게 태도(attitudes)와 능력(competencies)차원으로 나뉘며, 태도차원은 다시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타협성 성향으로, 능력차원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문제해결로 분류되어진다. 계획성 있는 진로탐색을 바탕으로 축적된 진로정보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며 개인은 이때부터 실질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하고 준비된 상태에 이른다. 결국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진로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가 높은 개인은 진로성숙도가 낮은 개인에 비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Park & Seong, 2008). Kim과 Hwang (2016)은 진로성숙도의 태도적 차원으로

계획성, 독립성, 직업에 대한 태도를, 능력적 차원으로 자기 이해와 진로탐색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태도적 차원을 살펴보면 계획성은 “진로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나가 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독립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업에 대한 태도는 “직업과 일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로 정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능력적 차원으로 분류되는 자기 이해는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탐색행동은 인지나 정서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범위와 강도를 나타내는 예비적 과정으로서의 정보수집활동과 자격준비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 이러한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들은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태도적 차원(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 능력적 차원(자기이해, 진로탐색)으로 분류하여 진로체험 유형과 부모지지와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Han, 2012; Kim & Hwang, 2016; Sau, 2002), 학년(Kim & Hwang, 2016; Song, 2011),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Kim, 2004), 학업수준(Sau, 2002), 경제적 수준(Chung & Choi, 2004; Kim, 2004)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 체험 유형과 진로관련 부모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부모의 교육수준, 학업수준, 경제적 수준을 통제변수로 두고 분석하였다.

## 2. 진로체험과 진로성숙도

진로체험은 체험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한 형태로, 진로교육 법안에서 진로체험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Low for Career Education, 2015).

진로체험은 직업의 직접적인 체험 뿐 아니라 전문가 강의나 시청각 직업정보의 탐색 등 진로탐색을 위한 간접적 체험을 포함하고 있다. Kim(2004)은 진로체험을 실제 작업을 하거나 관찰하는 직접 체험에 전문가 강의나 생산시설 견학, 각종 시청각 직업정보의 탐색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Jeong, Kim과 Seo(2011)는 진로체험을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 개발, 적합한 진로 탐색·선택 및 준비를 위해 실제 작업현장 또는 작업현장과 유사하게 만든 환경에서 실제 작업하거나 관찰, 견학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 계획적,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방법들 중에서 직업체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진로체험은 다른 진로교육의 방법들과 연계·통합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진로체험과 진로성숙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진로체험은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데 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진로체험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인턴십과 같은 진로체험은 진로 목표를 세우고 진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ershey, Silverberg, & Haimson, 1999),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진로성숙도 수준이 더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Cho, 2011). 또한 진로체험 활동은 긍정적 자아관과 직업가치관을 매개하여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효과를 끼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Kim, Hwang, & Kim, 2011). Kim 외(2014)는 진로체험을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유형 모두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이 중 직접체험이 간접체험보다 진로성숙도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정 직업인과의 만남이나 인터뷰, 진학 관련 멘토링 참여는 진로성숙도의 계획성과 자기이해를 도와주고, 독립성을 강화하며 진로탐색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Hwang, 2016).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탐색 체험은 진로성숙도와 합리적 전공 선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Lim & Lim, 2008).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직·간접적인 진로체험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ung 외(2012)과 Jeong, Kim과 Seo(2011)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로체험을 이론형, 대화형, 견학·방문형, 현장체험형으로 나누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진로

체험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론형은 시청각자료나 강연을 통하여 직업군에 대해 배우는 것을 의미하며, 대화형은 특정 직업군의 전문직업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1:1로 진로에 대해 진로상담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견학·방문형은 진로박람회나 직업현장 등에 견학 및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장체험형은 현장실습 등을 통하여 직업에 대해 모의체험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개별적 진로체험을 유형별로 구조화하여 진로성숙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체계적 진로성숙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진로체험 교육의 핵심 영역을 파악하였다.

### 3. 진로관련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

고등학교 시기의 부모는 조연자로서 자녀의 진로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받게 된다(Keum, 2003). 부모는 자녀들의 장기적인 진로나 가치관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녀가 진로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한다(Turner et al., 2003).

자녀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지지는 사회적 지지로 간주되며,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하위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서적 지지는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 표출을 도와주고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이해, 격려, 신뢰, 관심으로 표현된다. 평가적 지지는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것으로 칭찬, 소질 인정, 의사 존중으로 나타난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주는 것이며, 물질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시간, 자원을 제공해주는 것이다(Lee, 2004).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지지는 진로성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ek & Sim, 2015),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Kim & Lee, 2007; Lee, 2004). 또한 부모지지의 세부적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정보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보고

되었으며(Park, 2008),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시 자신감, 독립심,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1).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지지가 자녀들의 진로성숙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ark(1985)이 제시한 사회적 지지 척도의 개념을 사용하여 부모지지를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분류하여, 부모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부모지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진로성숙도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가정생활과 연계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인터넷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성별, 학년, 지역별로 층화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1~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이내에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6년 6월 22~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적절치 못한 문장이나 표현, 애매한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7월 4일~1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부실응답을 제외하고, 남학생 121명, 여학생 169명 총 290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체험 유형, 진로관련 부모지지, 진로성숙도의 구체적인 문항과 신뢰도는 <Table 2>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Item	N(%)	Variables	Item	N(%)
Gender	Male	121(41.7)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124(42.8)
	Female	169(58.3)		≤University graduation	139(47.9)
Grade	1	92(31.7)		University graduation≤	27( 9.3)
	2	98(33.8)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160(55.2)
	3	100(34.5)		≤University graduation	113(39.0)
Class Conscious	Lower	97(33.5)		University graduation≤	17( 5.9)
	Middle	117(40.3)	Economic Status	Lower	90(31.0)
	Upper	76(26.2)		Middle	104(35.9)
		Upper		96(33.1)	

1) 진로체험 유형

진로체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Chung 외(2012)과 Jeong, Kim과 Seo(2011)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론형, 대화형, 견학·방문형, 현장체험형으로 진로체험 유형을 구성하였다. 이론형은 시청각자료나 각 분야 전문직업인들의 강연을 통하여 직업군에 대해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형은 특정 직업군의 전문직업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1:1로 진로에 대해 진로상담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견학·방문형은 진로박람회나 직업현장 등에 견학 및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체험형은 현장실습 등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모의체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참여경험이 있으면 ‘유’, 없으면 ‘무’로 측정하였다.

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2006년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 자기 이해, 진로탐색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Kim과 Hwang(2016)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로성숙도의 5개 하위영역을 태도적 차원과 능력적 차원으로 재분류하였다.

우선, 태도적 차원의 진로성숙도는 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으로 구성하였다. 진로계획성은 진로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나가고자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계획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태도는 직업과 일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태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독립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독립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능력적 차원의 진로성숙도는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이해는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이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탐색은 진로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수집과 준비활동 및 진로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노력정도를 의미한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진로관련 부모지지

진로관련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2009)의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토대로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정보적 지지는 부모가 자녀들의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하여 진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는 부모가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녀들의 진로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지지는 부모가 진로와 관련된 취업이나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부모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2. Measurement Items and Reliability

Variables	Items	Cronbach' $\alpha$
Type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I've received career education through audio-visual materials.
		I've received career lectures through a specific professionalist.
	Communication	I've interviewed or had a meeting experience with a specific professionalist.
		I've received mentoring for my career from a specific professionalist.
	Field Trip & Visiting	I've went to career tours.
	I've went to job field trips.	
	I've tried job simulated experience.	
Field Experience	I've experienced an internship or a job training program.	
<Effects of Attitude>		
	I set a plan to achieve the desired job.	
	I think what to do now to achieve future goals.	
Career Planning	I make plans before starting work.	.75
	I care about the job's popularity in the future.	
	I have a clear career planning.	
	Occupation is only a means to make money.	
	A job is not a meaningful thing in my life.	
Occupational Attitude	I can not do a job if it doesn't earn a lot of money.	.69
	I find it difficult to discover a job I like.	
	My job has a significant impact on my life in the future.	
	Even if parents oppose my decision, I will choose a career I want.	
	I wish I had someone to determine my career.	
Career Independency	I will concede to an adult's decision to choose my job.	.66
	My opinion outweighs other's opinions when choosing my career.	
	I will choose the career I want despite adult's decisions.	
<Effects of Competency>		
	I know that this is something I can do well.	
	I know what things I like.	
Self Understanding	I know what things I hate.	.77
	I know my weaknesses.	
	I know my strengths.	
	I know my parts of interest.	

Variables	Items	Cronbach' $\alpha$
	I research for major or career I'm interested in.	
	I have never tried to contact the professionalists of the career I'm interested in.	
Career Exploration	I gather information about my job of interest.	.79
	I gather information about my major interest.	
	I look out for correct knowledge of my career.	
	I have never received voluntary counseling about my career problems.	
	I received guidance for my future career from my parents.	
Informative Support	I've shared information with my parents about careers that interest me.	.70
	Parents have provided me with information on the subject of jobs.	
	Parents helped me to explore career-related information.	
	Parents worry about my career issues with me.	
Emotional Support	Parents talk to me about my career issues.	.77
	Parents respect my opinions on the career.	
	Parents accept my opinions about the career.	
	Parents support the expenses for career preparation.	
Financial Support	Parents support the expenses for the academic preparation.	.81
	Parents support tuition fees for academic preparation.	
	Parents support tuition fees for career preparation.	



###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tata 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진로관련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체험 유형과 진로관련 부모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선,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태도적 차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계획성은 진로체험 유형 중 대화형과 견학·방문형 체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화형(M=3.32, SD=.43 vs. M=3.63, SD=.42), 견학·방문형(M=3.30 SD=.44 vs. M=3.53 SD=.44)에서 진로체험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에 비해 체험경험이 있는 경우 진로계획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태도는 진로체험 유형 중 대화형, 견학·방문형, 현장체험형 체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화형(M=3.30 SD=.41 vs. M=3.81 SD=.56), 견학·방문형(M=3.28 SD=.46 vs. M=3.64 SD=.55), 현장체험형(M=3.43 SD=.49 vs. M=3.76 SD=.61)에

서 체험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에 비해 체험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독립성은 대화형, 견학·방문형, 현장체험형 체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화형(M=3.20 SD=.48 vs. M=3.75 SD=.51), 견학·방문형(M=3.18 SD=.49 vs. M=3.56 SD=.56), 현장체험형(M=3.36 SD=.55 vs. M=3.62 SD=.57)에서 진로체험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진로독립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심 있는 직업군의 관련 직업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진로상담을 받거나, 진로박람회나 직업현장 등을 견학·방문하고 직업에 대한 모의 체험 기회를 경험한 고등학생들이 태도적 차원(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체험참여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능력적 차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이해는 진로체험 유형 중 이론형, 대화형, 견학·방문형 체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론형(M=3.42 SD=.42 vs. M=3.79 SD=.44), 대화형(M=3.68 SD=.43 vs. M=3.91 SD=.43), 견학·방문형(M=3.67 SD=.41 vs. M=3.83 SD=.44)에서 체험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에 비해 체험경험이 있는 경우 자기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탐색은 진로체험 유형 중 이론형, 대화형, 견학·방문형 체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론형(M=3.32 SD=.27 vs. M=3.78 SD=.44), 대화형(M=3.64 SD=.40 vs. M=3.93 SD=.43), 견학·방문형(M=3.65 SD=.44 vs. M=3.81 SD=.43)에서 체험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진로탐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청각자료나 강연을 통해 직업에 대해 배우거나, 관련 직업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진로상담을 받거나, 직업 현장이나 진로박람회 등을 견학·방문한 고등학생들이 능력적 차원(자기이해, 진로탐색)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턴십 참여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진로성숙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Cho, 2011) 및 진로체험 참여여부에 따라 진로성숙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선행 연구(Kim & Hwang, 2016)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Table 3. Difference of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Program Type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Effects of Attitude										Effect of Competency			
	Career Planning			Occupational Attitude			Career Interdependency			Self Understanding		Career Exploration		
	N	M (SD)	t-test	M (SD)	t-test	M (SD)	t-test	M (SD)	t-test	M (SD)	t-test			
Theory	No	11	3.25 (.44)	-1.50	3.22 (.30)	-1.91	3.38 (.59)	-0.34	3.42 (.42)	-2.76 **	3.32 (.27)	-3.50 ***		
	Yes	279	3.46 (.45)		3.54 (.55)		3.44 (.56)		3.79 (.44)		3.78 (.44)			
Communication	No	164	3.32 (.43)	-6.05 ***	3.30 (.41)	-8.88 ***	3.20 (.48)	-9.43 ***	3.68 (.43)	-4.51 ***	3.64 (.40)	-6.01 ***		
	Yes	126	3.63 (.42)		3.81 (.56)		3.75 (.51)		3.91 (.43)		3.93 (.43)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No	93	3.30 (.44)	-4.21 ***	3.28 (.46)	-5.42 ***	3.18 (.49)	-5.73 ***	3.67 (.41)	-2.85 **	3.65 (.44)	-2.95 **		
	Yes	197	3.53 (.44)		3.64 (.55)		3.56 (.56)		3.83 (.44)		3.81 (.43)			
Field Experience	No	206	3.43 (.44)	-1.21	3.43 (.49)	-4.97 ***	3.36 (.55)	-3.60 ***	3.76 (.42)	-1.37	3.76 (.45)	-0.36		
	Yes	84	3.50 (.47)		3.76 (.61)		3.62 (.57)		3.84 (.48)		3.78 (.41)			

\*p<.05, \*\*p<.01, \*\*\*p<.001

2. 진로관련 부모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관계

진로관련 부모지지(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모든 진로관련 부모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받을수록, 부모와 함께 진로문제를 고민하고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줄수록,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해 부모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Kim과 Lee(2007), Lee(200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3.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과 진로관련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과 진로관련 부모지지가 진로성숙

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적 변수인 성별, 학년, 부와 모의 교육수준, 학업수준,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상태(Kim, 2004; Kim & Hwang, 2016; Sau, 2002)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 값이 0.2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 값이 1.5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고등학생의 태도적 차원의 진로성숙도(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진로계획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통제변수는 진로계획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7%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진로체험 유형을 투입한 결과, 학년( $\beta = .12$ )이 높을수록 진로계획성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체험 유형 중 대화형( $\beta = .26$ )과 견학·방문형( $\beta = .18$ ) 경험 이 진로계획성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7%로 진로체험유형의 투입에 의해 10% 향상되었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진로체험 유형과 진로관련 부모지지를 투입한 결과, 학년( $\beta = .13$ )과 교육수준( $\beta = .13$ )이 높을수록 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Attitudinal Effects

		Parental support			Attitudinal Effects				
		Informative Support	Emotional Support	Finical Support	Career Planning	Occupational Attitude	Career Independency	Self Understanding	Career Exploration
Parental Support	Informative	1							
	Emotional	.65 ***	1						
	Financial	.46 ***	.33 ***	1					
	Career Planning	.51 ***	.46 ***	.40 ***	1				
Attitudinal Effects	Occupational Attitude	.51 ***	.57 ***	.43 ***	.65 ***	1			
	Career Independency	.56 ***	.57 ***	.37 ***	.75 ***	.85 ***	1		
	Self Understanding	.44 ***	.42 ***	.47 ***	.54 ***	.63 ***	.56 ***	1	
	Career Exploration	.55 ***	.40 ***	.47 ***	.64 ***	.67 ***	.74 ***	.55 ***	1

\*p< .05, \*\*p< .01, \*\*\*p< .001

로계획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체험 유형에서 대화형( $\beta = .21$ )과 견학·방문형( $\beta = .15$ ) 경험이 진로계획성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 중 정보적 지지( $\beta = .14$ )와 정서적 지지( $\beta = .15$ )가 높을수록 진로계획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3%로 진로관련 부모지지 투입으로 설명력이 6% 향상되었다.

직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통제변수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이하 집단에 비해 대학원졸이상( $\beta = .17$ ) 집단에서 직업태도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6%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진로체험 유형을 투입한 결과, 진로체험 유형 중 이론형( $\beta = .11$ ), 대화형( $\beta = .35$ ), 견학·방문형( $\beta = .16$ ), 현장체험형( $\beta = .13$ ) 경험 모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8%로 진로체험 유형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22% 향상되었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진로체험 유형과 진로관련 부모지지를 투입한 결과, 학년( $\beta = .14$ )이 높을수록 직업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체험 유형 중 대화형( $\beta = .31$ ), 견학·방문형( $\beta = .14$ ), 현장체험형( $\beta = .11$ ) 경험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 중 정서적 지지( $\beta = .22$ )와 물질 지지( $\beta = .18$ )가 높을수록 직업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로 진로관련 부모지지 투입으로 설명력이 8% 향상되었다.

진로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통제변수는 진로독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5% 설명하였으며, 2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진로체험 유형을 투입한 결과, 학업수준( $\beta = .12$ )이 높을수록 진로독립성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체험 유형 중 대화형( $\beta = .41$ )과 견학·방문형( $\beta = .19$ ) 경험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8%로 진로체험 유형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23% 향상되었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진로체험유형과 진로관련 부모지지를 투입한 결과, 교육수준( $\beta = .13$ )과 학업수준( $\beta = .15$ )이 높을수록 진로독립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체험유형 중 대화형( $\beta = .34$ )과 견학·방문형( $\beta = .15$ ) 경험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 중 정보적 지지( $\beta = .11$ )와 정서적 지지( $\beta = .25$ )가 높을수록 진로독립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 설명력은 38%로 진로관련 부모지지 투입으로 설명력이 10% 향상되었다.

Table 5. Effects of Program Type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and Parental Support on Effect of Attitude in Career Maturity

	Effects of Attitude																							
	Career Planning						Occupational Attitude						Career Independence											
	Step1	Step2		Step3		Step1	Step2		Step3		Step1	Step2		Step3										
B	SI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Constant)	3.11	.11		2.75	.17	2.01	.22		3.16	.14	3.16	.14	2.57	.19	1.60	.24		2.96	.14	2.59	.19	1.53	.25	
Female (Male=0)	.10	.05	.11	.08	.05	.09	.06	.05	.07	.05	.06	.05	.04	.06	.04	.01	.06	.01	.09	.07	.08	.06	.06	.06
Grade	.04	.03	.07	.04	.03	.07	.07	.03	.13	.06	.04	.09	.06	.04	.09	.09	.03	.14	.06	.04	.09	.05	.04	.07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0)	.03	.07	.03	.04	.07	.04	.06	.05	.01	.08	.01	.08	.05	.07	.05	.07	.07	.06	.00	.09	.00	.02	.08	.02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0)	.21	.13	.14	.12	.12	.08	.08	.12	.05	.33*	.15	.17	.20	.14	.11	.18	.13	.09	.25	.16	.13	.09	.14	.05
Class Conscious	.07	.04	.11	.07*	.03	.12	.07*	.03	.13	.02	.04	.02	.04	.04	.06	.04	.04	.06	.07	.04	.09	.09*	.04	.12
Economic Status	-.01	.04	-.01	-.02	.03	-.03	-.02	.03	-.03	.05	.04	.07	.02	.04	.03	.02	.04	.03	.06	.05	.08	.03	.04	.05
Program Type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21	.13	.09	.11	.13	.05				.33*	.14	.11	.19	.14	.07				.08	.15	.03
Communication				.24***	.06	.26	.19**	.05	.21				.39***	.06	.35	.34***	.06	.31				.46***	.06	.41
Field Trip & Visiting				.18**	.06	.18	.14*	.06	.15				.19**	.06	.16	.16**	.06	.14				.23**	.07	.19
Field Experience				-.05	.06	-.05	-.08	.06	-.08				.16*	.07	.13	.13*	.06	.11				.06	.07	.04
Parental Support																								
Informative				.11*	.05	.14																		
Emotional				.13*	.05	.15																		
Financial				.07	.04	.10																		
F	3.63**			5.94***			6.81***			3.36**			10.41***			12.06***			3.10**			10.57***		12.64***
R <sup>2</sup>	.09			.20			.27			.09			.31			.40			.08			.31		.41
Adj. R <sup>2</sup>	.07			.17			.23			.06			.28			.36			.05			.28		.38

고등학생의 능력적 차원의 진로성숙도(자기이해, 진로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우선, 자기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통제변수 중 남성에 비해 여성( $\beta = .16$ )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이하 집단에 비해 대학원졸이상( $\beta = .19$ ) 집단에서 자기이해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5%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진로체험 유형을 투입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 $\beta = .15$ )의 자기이해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체험 유형 중 이론형( $\beta = .15$ ), 대화형( $\beta = .19$ )과 견학·방문형( $\beta = .13$ ) 경험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2%로 진로체험 유형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7% 향상되었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진로체험유형과 진로관련 부모지지를 투입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 $\beta = .12$ )이 자기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체험 유형 중 이론형( $\beta = .12$ ), 대화형( $\beta = .16$ )과 견학·방문형( $\beta = .12$ ) 경험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 중 정서적 지지( $\beta = .13$ )와 물질적 지지( $\beta = .17$ )가 높을수록 자기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7%로 진로관련 부모지지 투입으로 설명력이 5% 향상되었다.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통제변수 중 남성에 비해 여성( $\beta = .17$ )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이하 집단에 비해 대학원졸이상( $\beta = .22$ ) 집단이, 학업수준( $\beta$

$= .19$ )이 높을수록 진로탐색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력을 15%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진로체험 유형을 투입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 $\beta = .15$ )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이하 집단에 비해 대학원졸이상( $\beta = .16$ ) 집단이, 학업수준( $\beta = .20$ )이 높을수록 진로탐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체험유형 중 이론형( $\beta = .19$ ), 대화형( $\beta = .26$ )과 견학·방문형( $\beta = .13$ ) 경험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5%로 진로체험 유형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10% 향상되었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진로체험유형과 진로관련 부모지지를 투입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 $\beta = .10$ )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이하 집단에 비해 대학원졸이상( $\beta = .14$ ) 집단이, 학업수준( $\beta = .19$ )이 높을수록 진로탐색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체험유형 중 이론형( $\beta = .15$ ), 대화형( $\beta = .21$ )과 견학·방문형( $\beta = .10$ ) 경험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진로관련 부모지지 중 정보적 지지( $\beta = .18$ )와 물질적 지지( $\beta = .13$ )가 높을수록 진로탐색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31%로 진로관련 부모지지 투입으로 설명력이 6%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직업인과 만남이나 인터뷰, 멘토링이 진로성숙도의 태도적 차원에,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진로교육이 진로탐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Kim과 Hwang(2016)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6. Effects of Program Type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and Parental Support on Effect of Competency in Career Maturity

	Effect of Competency																
	Self Understanding					Career Exploration											
	Step1	Step2	Step3	Step1	Step2	Step3	Step1	Step2	Step3	Step1	Step2	Step3	Step1	Step2	Step3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Constant)	3.73	.11		3.27	.17		3.33	.10		2.79	.15		2.11	.20			
Female (Male=0)	.14**	.05	.16	.13**	.05	.15	.12	.05	.17	.13**	.05	.15	.09*	.05	.10		
Grade	-.05	.03	-.10	-.05	.03	-.10	-.06	.03	-.01	.00	.03	-.00	.04	.03	.07		
Father's Education (≤University graduation)	.04	.07	.04	.05	.07	.06	.07	.09	.10	.09	.06	.10	.09	.06	.11		
University Education (≤High school=0)	.29*	.12	.19	.23	.12	.15	.12	.14	.34**	.12	.22	.25*	.16	.21*	.11	.14	
Mother's Education (≤University graduation)	.02	.07	.02	-.03	.07	-.03	-.03	.07	.08	.03	.07	.03	.03	.06	.04		
University Education (≤High school=0)	-.02	.14	-.01	-.08	.14	-.05	-.10	.13	-.01	-.05	.13	-.03	-.05	.12	-.03		
Class Conscious	.05	.03	.08	.05	.03	.09	.05	.03	.08	.11**	.03	.19	.11***	.03	.20	.11***	.19
Economic Status	-.03	.04	-.06	-.04	.03	-.08	-.04	.03	-.07	.02	.03	.03	.01	.03	.01	.03	.01
Program Type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35**	.13	.15	.27*	.13	.12	.43***	.12	.19	.35**	.12	.15		
Communication				.17**	.06	.19	.14*	.05	.16	.23***	.05	.26	.18***	.05	.21		
Field Trip & Visiting				.12*	.06	.13	.11*	.06	.12	.12*	.05	.13	.09*	.05	.10		
Field Experience				.01	.06	.01	.00	.06	.00	-.07	.05	-.07	-.09	.05	-.09		
Parental support																	
Informative				.02	.05	.02	.02	.05	.02	.14**	.05	.18	.05	.18			
Emotional				.11*	.05	.13	.11*	.05	.13	.05	.13	.05	.06	.05	.06		
Financial				.11**	.04	.17	.11**	.04	.17	7.23***	.08*	.13	.08*	.03	.13		
F	2.94**			4.37***			4.81***			9.01***			9.68***				
R <sup>2</sup>	.08			.16			.21			.28			.35				
Adj. R <sup>2</sup>	.05			.12			.17			.25			.3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진로체험 유형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인 태도적 차원(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과 능력적 차원(자기이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주요 연구 결과와 함께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함양을 위한 논의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의 태도적 차원인 진로계획성은 대화형, 견학·방문형 경험을 한 경우, 직업태도와 진로독립성 수준은 대화형, 견학·방문형, 현장체험형 경험을 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 능력적 차원인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은 이론형, 대화형, 견학·방문형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즉 진로체험 유형에서 대화형과 견학·방문형은 모든 진로성숙도의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론형은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에서 효과성을 보이므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교육에 있어 이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진로체험을 실시하여 일괄적으로 진로성숙도를 높이고자 하는 비효율적 진로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진로성숙도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진로체험 교육을 행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과 그들의 진로교육 요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다음, 부족한 하위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진로체험 교육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청각 자료나 각 분야 전문직업인들의 전체 강연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준비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학생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군의 전문직업인을 만나 인터뷰를 하거나 일대일로 진로에 대해 진로상담을 받고 현장에서의 모의체험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직업과 일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가지도록 하고, 스스로 진로계획을 세우며 독립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사전 진로성숙도 검사 및 요구 조사를 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진로체험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진로체험 후 참여 학생들의 사후 평가를 통하여 성취도를 파악한 다음 추가적인 진로체험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행해질 때,

균형적인 진로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진로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진로관련 부모지지도인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의논하며 진로문제해결에 물질적 자원을 지원해 줄수록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부모지지의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므로 진로지도에 있어 부모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관한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적 지지는 진로성숙도의 태도적 차원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며, 정보적 지지는 진로탐색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자녀들의 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요구되며, 진로탐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의미한 존재인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지지를 해 줄 때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과 진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줄 때 스스로 진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관심어린 지지를 통해 적합한 진로발달을 도모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인 부모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상황을 함께 의논하여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감정표현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진로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부모와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물질적 지지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진로와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이 고등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과 같이 시행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과의 적극적 지지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진로교육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애설계 측면에서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정과교육의 진로교육이 적절하다. 가정과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은 단순히 진로탐색이 아닌 가정생활과의 조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생애관점에



서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통해 내면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어 진로발달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자녀와의 상호관계와 생활자원을 파악하여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진로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가정과교육의 통합적 시각에서 진로교육을 접근하여야 한다.

셋째, 진로체험 유형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대화형과 견학·방문형은 태도적 차원(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과 능력적 차원(자기이해, 진로탐색) 모두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론형은 능력적 차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장체험형은 직업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지지를 투입하여 진로체험 유형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지지가 진로탐색을 제외한 모든 진로성숙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지는 진로계획성, 진로독립성, 진로탐색에 물질적 지지는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탐색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진로체험 유형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련성을 종합해 보면 개인적인 대면활동인 대화형은 진로성숙도의 전반적 영역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도 태도적 차원(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반면 전체적 집합활동인 이론형은 능력 차원(자기이해, 진로탐색)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진로지도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또는 진로상담은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와 진로정보 탐색에 치중되고 있다. 이는 진로성숙의 능력차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진로교육이 진로선택 관점에서 주로 반영되다 보니 생애전반적인 측면에서 진로발달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진로를 한 번의 선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인생의 매순간 마주치는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한다고 바라볼 때, 진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진로 태도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진로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성숙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이는 생애설계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가정과교육의 진로교육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과교

육에서는 구체적인 직업의 탐구 뿐 아니라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직업관과 가정생활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를 이해하고 발전적 자기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을 중요시한다(Lee, 2012). 즉 직업과 일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세우고, 현재를 조망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진로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과교육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적절성이 제기되어지며, 아울러 교육적 효과를 위해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을 중심으로 전문직업인과의 일대일 인터뷰와 멘토링 제도를 장려하는 진로체험 학습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개인적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진로체험을 활성화하여 기존의 집합적 진로체험활동과 조율하여 병행한다면 극대화된 진로교육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을 경험 유무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진로성숙도에 적절한 양적 빈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형별 진로체험 빈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진로체험의 효율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지지를 파악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를 구분하여 자녀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고등학생들로부터 진로와 관련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 유형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진로성숙 발달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 참고문헌

- Au Y-K (2008). Estimating change patterns in adolescents'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feeling on career educ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1(4), 23-41.
- Baek Y-O & Sim H-S (2015). Effects of self determination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5(1), 59-74.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Cho E-S (2011). Effects of the youth internship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4(4), 191-208.
- Cho H-J & Hwang M-H (2014). Effect of vocational experience program on the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motivation of elementary school underachiever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5(4), 285-312.
- Choi E-H (2007).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to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Chung H-J & Choi I-S (2004). Relationships among family conflicts, psychological adjustment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3), 773-791.
- Chung Y-S, Go J-S, Kang O-H, & Suh H-J (2012). The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work experience program for youth.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1), 217-240.
- Crites, J. O. (1974). *Career development process: A model of vocational maturity*. In E. L. Herr (Ed.), *Vocational guidance and human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 Han S-H (2003).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Han S-M (2012).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parent support upon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ershey, A.M., Silverberg A.M., & Haimson, H. R. J. (1999). *Expanding options implementation*, Mathematica Policy Research, Washington, D. C.: Planning and Evaluation Service.
- Jeong Y-K, Kim N-R, & Seo Y-J (2011). *Study on the support system of work experience centered career educ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Seoul, Korea.
- Keum M-J (2003). *The change of adolescents through counseling practice*, *Youth counseling issues research reports*. Seoul: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 Kim D-K (2004). *Development of work experience program for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 Kim H-S & Yang S-H (2012). Effect of high school and students' characteristics on career maturity in Seou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1), 57-74.
- Kim J-C, Hwang M-H, & Kim A-Y (2011).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self-observation and intrinsic work value between experiential activities and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19(2), 393-407.
- Kim K-H & Kang Y-B (2004). Analysis on the vocational undecidednes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4(3), 1-20.
- Kim K-H, Yoo H-J, & Oh B-D (2014). Effect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3(3), 19-36.
- Kim S-A (2010). *Relationships of parental support, assessment of decision making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im S-B (2010). *Interpretation of the "Career and vocational" for Middle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 Kim S-H (2004).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nd career maturation by demographic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 Kim S-R & Hwang Y-J (2016). Influences of career experiential

- learning and program evalu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2), 167-190.
- Kim S-R & Lee J-C (2007).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psychology*, 19(2), 393-407.
- Kwak H. (2011).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K (2001).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R & Kim S-M (2007). Effects of career identity and parents' support on career matur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6(3), 25-43.
- Lee K-J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H & Shin H-J (2015).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ademic support and career maturity.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1(3), 131-151.
- Lee S-H (2009). Development of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for college stud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3), 1539-1553.
- Lee S-H (2012). Exploratory study on the life career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3), 123-142.
- Lim E-M & Lim S-I (2008). Effects of major exploring program on session evaluation, major selection typ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1(1), 113-129.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2006 vitalizations of vocational guidance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oul,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9). *2008 vitalizations of vocational guidance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oul,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2013a). *Operating performance of 2012 career experience*. Ministry of Education, Seoul, Korea.
- Park H-H & Seong T-J (2008).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on career maturity development according to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19(1), 117-142.
- Park H-J & Kim B-W (2006).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2), 419-439.
- Park H-M & Chang S-J (2013)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Family and Family Therapy*, 21(1), 1-21.
- Park J-W (1985).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Y (2008). *Impact of informational support and self-esteem on career maturity of youth in the welfare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Sau J-S (2002). *Effects of school and family background variable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ir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H-S & Hong H-Y (2010).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1325-1350.
- Song M-K (2011). A study on career maturity and decision-making transitions of youth. *Studies on Korean Youth*, 18(4), 329-347.
- Super, D. 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5). Low for Career Education. Available at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7%84%EB%A1%9C#undefined>.

Turner, S L., Alliman-Brisett, A., Lapan, R. T., Udipi, S. J. & Ergun, D.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2), 83-94.

Won S-H (201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areer maturity*

*and parental attachment in adolescence: The longitudinal effect of self-control as a mediat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Yi H-J (2009).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an undergradu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 진로성숙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진로체험 유형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인 태도적 차원(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과 능력적 차원(자기이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290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의 태도적 차원인 진로계획성은 대화형, 견학·방문형 경험을 한 경우, 직업태도와 진로독립성 수준은 대화형, 견학·방문형, 현장체험형 경험을 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 능력적 차원인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은 이론형, 대화형, 견학·방문형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진로관련 부모지지인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영역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진로체험 유형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대화형과 견학·방문형은 태도적 차원(진로계획성, 직업태도, 진로독립성)과 능력적 차원(자기이해, 진로탐색) 모두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론형은 능력적 차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지지를 투입하여 체험유형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지지가 진로탐색을 제외한 모든 진로성숙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지는 진로계획성, 진로독립성, 진로탐색에 물질적 지지는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탐색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의 하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과 실행에 의미 있는 정보적 역할을 하며, 부모지지와 연계한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진로교육 운영지침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6년 09월 09일, 논문심사일자: 2016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1월 04일